

실제 공간에서 재현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

박성준·박형철 작가 '르:몽타주' 전 오늘부터 불꽃놀이·전쟁폭격 등 생동감 있는 작품 감상

광주문화재단은 '미디어338'에서 상반기 공모 선정작 'RE:MONTAGE (르:몽타주)' 전을 오는 15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박성준, 박형철 작가는 영화적 요소를 작품에 반영한 독특한 형태의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사건에 대한 서사적 요소를 비롯, 관객

들과 소통하는 쌍방향적 요소가 혼재된 설치작품들은 영화 같은 이야기를 극장이 아닌 실제 공간에서 재현한다. 관람객들은 자신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편집되는 모습을 보며 생동감 있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YOUR FLAME'은 관람자의 위치나 움직임에 따라 조명과 사운드가 반응

하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으로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불꽃을 모티브로 데이터베이스화 된 이미지에 불꽃놀이와 전쟁폭격을 연상케 하는 사운드가 더해져 관람객이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다른 시선을 갖게 되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근원적 질문을 던지며 평화의 메시지를 역설한다.

이번 전시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미디어338'에서 진행되며, 15일 오후 5시에는 오픈행사가 열린다.

한편, 이번 전시에 참여한 박성준 작가는 영화와 설치미술, 뉴미디어를 활용해 의도적으로 혼란과 괴리의 공간을 극대화시켜 감상자에게 그 공간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와 동시에 관념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던진다.

주로 개념적인 설치와 공간 작업을 진행하는 박형철 작가는 작업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시안미술관을 기획, 전시 기획·설치·공간구성에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방식의 실험적인 공동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

/이보람 기자



'perception IV-1'



ACC 전시 테크니션 과정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전시 테크니션 기초·축제기획자 현장실습과정

ACC는 해마다 인기리에 진행된 전문인력 아카데미 프로그램 '전시 테크니션' 기초 과정과 '축제기획자' 현장실무 과정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ACC는 문화예술 현장의 맞춤형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18년 전문인력 아카데미 8개 분야를 운영한다.

전문인력 아카데미는 세계적 수준의 ACC 자원환경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현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분야별 실무형 전문기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8년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는 전문 영역을 확장하고, 분야를 세분화 해 전시 테크니션, 축제기획자, 어린이문화 콘텐츠 기획자, 시노그래퍼, 융·복합 콘텐츠 기획자, 음향디자이너, 미디어아키비스트, 문화기술 현장실무 등 전체 8개 분야로 구성했다.

8개의 전문 영역 중 '전시 테크니션' 과정은 ACC에서 국내 최초로 개설해 큰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으로, 작품설치 및 프로젝트 맵핑에 이르는 기초과정부터 설치, 영상, 음향의 전문화 과정인 심화 과정을 거쳐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또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전시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축제 기획자' 현장실무 과정에는 상반기에 진행되는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How Fun4'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실습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과정은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ACC 축제기획자 기초과정 수료생들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오는 3월 23일까지 ACC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교육은 4월 7일부터 매주 주말에 진행된다.

/이연수 기자

문범강 교수가 말하는 평양미술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출간 9월 광주비엔날레서 북한작품 공개

천경자 화백의 사위인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가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를 출간했다.

북한미술연구자이자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술사학자인 문 교수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양을 9차례 방문해 미술품 제작 집단인 창작사와 전시관을 방문하고 여러 작가를 만난 성과를 정리했다.

출판사 서울선택이 펴낸 이 책에서 문 교수는 '조선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조선화는 '북한의 동양화'로 한국화

나 중국화와는 구별된다. 1980년대 한국 민중미술처럼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한 회화 양식으로, 대부분 수묵 채색화다.

북한미술은 보통 소련 스탈린 통치 시절에 태동해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로 분류된다. 이 조류는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미술품을 제작해 주제가 한정적이고 예술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문 교수는 이러한 통념에 과감하게 반기를 든다. 그는 "조선화는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 중에서도 독특한 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송의정)은 오는 17일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시대'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과 연계해 준비한 것으로, 드레스덴 궁정에서 사랑받은 음악들을 직접 들려볼 수 있다.

18세기 독일 궁정에서는 연회나 행사를 위해 수많은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연주됐다. 잘 알려진 바로크 음악의 대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J.S.Bach, 1685~1750)를 비롯, 바로크 오페라의 기초를 다진 장 밥티스트 륄리(J.B.Lully,

1632~1687)와 드레스덴 궁정에서 가장 사랑받은 음악가 요한 아돌프 핫세(J.A.Hasse, 1699~1783)의 음악을 바로크 악기와 소프라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또, 바로크 고음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이 연주를



천경자 화백의 사위인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가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출판 기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방법에 전착해 왔다"며 "특히 인간 내면의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해 과감한 붓 터치로 표현한 인물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여름 미국 워싱턴 아메리칸대에서 북한미술 전시를 기획했던 문 교수

는 오는 9월 7일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에서 큐레이터로서 북한미술 작품을 공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북한미술'전에는 집체화 4~5점을 포함해 인물화 중심의 조선화 약 25점이 나온다.

/연합뉴스

박물관에서 바로크 음악을 만나다

국립광주박물관,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초청 바흐·뤼리·핫세 등...18세기 독일 궁정 음악

말아 음악과 악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상의 연주를 선사한다.

음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17일 오후 5시부터 박물관 전시실 중앙홀에서 열린다.

한편, 특별전 '왕이 사랑한 보물'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명품 수집품을 한



'카메라타 안티과 서울'

데 모은 것으로 4월 8일까지 계속된다.

/이보람 기자

투자 가치 좋습니다. 010-3605-5000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제2종 주거지역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상수도 급수 공사 완료
- 급매-4200만원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팟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이상
- 장기투자 최적
- 타 부동산 교환가능
- 매매 - 14억 분할매매가

거문도, 토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50
- 400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전망좋은
- 근접토지가 경매로 평당 50만원에 낙찰됨 (20명 입찰)
- 전원주택/ 펜션부지 최적
- 장/단기 투자가치 좋음
- 매매 - 1억 6000만원 (평당 40만원)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락희 호텔 /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 210평 (실 147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스크린실내 골프장 등등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보 1억에 월 400만원 임대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조정가)